

위험한 행운의 편지

이지수 장편동화 | 송호정 그림 | 별숲 펴냄



- 주인공 영수의 학교생활 모습은 지금 우리의 학교생활 모습과 매우 다릅니다. 책 속에서 볼 수 있는 영수의 학교생활 모습들을 찾아보고, 지금 나의 학교생활 모습과 비교해 봅시다. 1937년의 학생들이 다니던 학교와 지금의 학교생활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?

영수의 학교 생활 모습

예시) 한 반의 학생이 72명이다.

나의 학교 생활 모습

예시) 한 반의 학생이 20명이다.

- 영수의 학교생활 모습을 살피고 난 후의 느낀 점이나 내 생각을 써 봅시다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.....



위험한 행운의 편지

이지수 장편동화 | 송효정 그림 | 별숲 펴냄



- 책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작가님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.

김구 선생이나 안중근, 윤봉길 의사처럼 독립운동에 나서지는 못했지만 일제에 항거한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았습니다. 떨리는 손으로 위험한 행운의 편지를 쓰던 그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.

_ 이지수

책 속에서 위험한 행운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경찰서에 잡혀가 매를 맞았으며, 위험한 행운의 편지를 보낸 사람을 찾기 위해 경찰들이 나서기까지 할 정도입니다. 자칫 목숨도 위험한 일이지요. 떨리는 손으로 조선 독립을 위해 위험한 편지를 쓴 영수, 옥희, 만호 그리고 친구들. 여러분도 이 친구들의 마음을 담아 위험한 행운의 편지를 따라 써 봅시다. 1937년의 영수, 옥희, 만호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니까요.



행운의 편지

이 편지를 받은 후 일주일 안에 당신의 이름을 적지 말고 당신의 친구 일곱 사람에게 이 편지를 한 자라도 틀리지 않게 꼭 그대로 베껴 보내기만 하면 소원(조선이 독립됩니다)이 이루어집니다. 한 달 후에 굉장한 좋은 일이 당신을 찾아갈 것입니다. 만일 이 편지를 끊으면 반드시 화가 미칠 것입니다.

가을 어느 날

위험한 행운의 편지

이지수 장편동화 | 송효정 그림 | 별숲 펴냄



- 영수는 옥희와 만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. 매일 함께 지낸 친구지만, 막상 편지를 쓰려고 하니 밤늦도록 편지를 썼다 지우도 또 쓰기를 되풀이하였죠. 여러분도 나의 친한 친구에게 정성을 담은 편지를 써 보거나, 받아 본 적이 있나요? 편지는 주는 사람도, 받는 사람도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. 여러분도 나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편지를 써 보는 건 어떨까요?

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a yellow background and a series of horizontal dashed lines for writing. The area is framed by a light orange border on the left and bottom.

